

01 교회소식

2012 만민 하계수련회

올 여름도 푸르른 자연 속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만민 하계수련회가 준비돼 있다.

02 생명의 말씀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옴은 연단을 통해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해 벗어 버림으로 정금 같은 믿음과 더불어 물질, 자녀, 건강 등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03 축복의 비결

십일조,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 십일조,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04 간증

온 가족이 하나되니 태국 선교 행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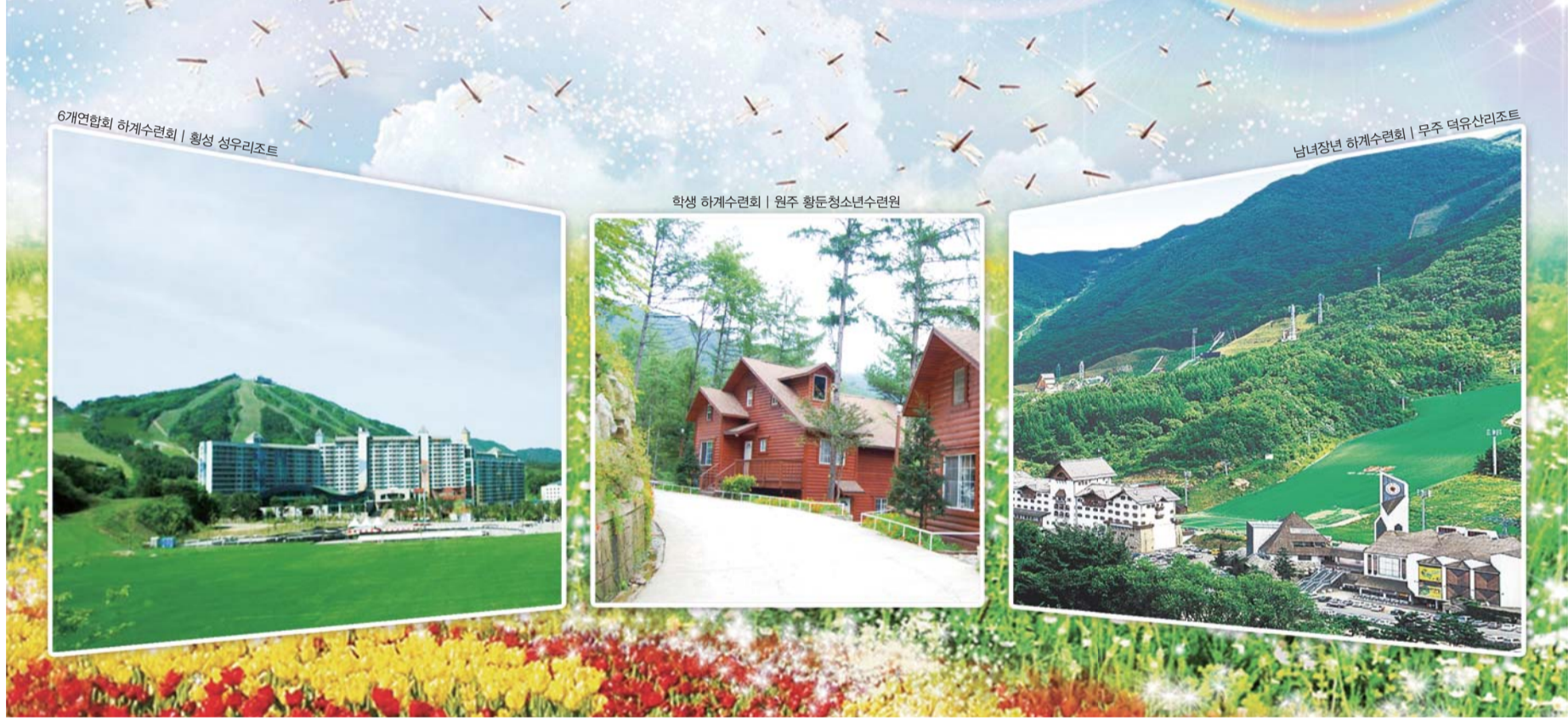
불교 나라 태국에서 성경 복음을 전하는 이재원 선교사, 세 아들이 있어 선교가 더욱 행복하다는데...

만민뉴스

제541호 2012년 7월 1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행복과 감동이 넘치는 하계수련회 눈앞에 성큼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캠프파이어, 체육대회, 기사 체험



대자연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 은혜, 오는 7월 29일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학생주일학교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강원도 원주 황둔청소년수련원에서, 남녀장년(전국 지교회, 해외교구, 중국 대교구, 농이인선교회 포함)은 8월 6일부터 8일까지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6개연합회(대학, 가나안, 청년, 바울, 마리아, 빛과소금선교회)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횡성 성우리조트에서, 주사랑선교회(새터민)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고성 금강산 콘도에서 하계수련회가 각각 개최된다. 특히 이번 남녀장년 하계수련회 체육대회는 대대교구별 대항으로 열려 그 귀추가 자못 주목된다.

춘천만민교회 새 성전 이전

춘천만민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 새 성전으로 이전했다. 지난 7월 1일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방문해 새 성전 이전을 축하하며 성도들을 격려했다.

담임 김동헌 목사는 “은 성도가 21일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아홉 번 작정하여 합심 기도로 준비했는데 성전 이전 후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겁다’며 더욱 충만한 신앙생활과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새 성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교회 건물 뒤쪽으로는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져 있다. 또한 계단과 성전 입구 등은 천국 새 예루살렘 그림으로 꾸며져 천국 소망을 더해 주며, 밤에는 십자가 종탑이 아름다운 오로라 빛 LED로 밝혀진다.



북동 인도 목회자들, 새롭게 사역 비전 다져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나갈랜드 주 디마푸르 지역에서 지난 6월 26일과 27일 목회자 및 일꾼 세미나가 있었다.

강사 김상휘 목사(델리만민교회)와 리마 임송 목사(아루나찰만민교회)는 ‘열 재앙’과 ‘지식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믿음의 분량’ 등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말씀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

나갈랜드 침례 교단 운영위원회 소속 라누 목사는 “이재록 목사님 저서를 읽고 뱀기를 사모하고 있었다. 세미나 말씀은 목사인 저는 물론 성도들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감동적인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신간

이재록 목사 다국어 저서

‘지옥’ 말레이시아어, ‘십자가의 도’ 리투아니아어, ‘나의 삶 나의 신앙 1’ 알바니아어와 그리스어가 발간됐다. 또한 7월 중 ‘나의 삶 나의 신앙 2’가 에스토니아어와 불어로, ‘십자가의 도’가 세르비아어, 마케도니아어, 폴란드어, 터키어로, ‘영혼육(상)’과 칼럼모음 ‘등불’이 영어, ‘세례문답서’가 러시아어로 발간된다.



•말레이시아어 •알바니아어 •그리스어 •에스토니아어 •불어 •리투아니아어 •세르비아어 •마케도니아어 •폴란드어 •터키어 •영어 •러시아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래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20~21)

락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송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말대로 욥이 정말 그런지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시지요. 욥의 소유물을 다 거둘지라도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즉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욥 1:12).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송사해 시험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13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2.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

마침내 욥에게 엄청난 시험이 다가옵니다. 자신의 몸을 제외한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순식간에 잃게 되지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욥 1:21).

이번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발했지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손으로 긁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심해지자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긁을 정도였지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는 위로는 못할 망정 이 지경 속에 밀어넣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느냐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욥 2:9)고 합니다. 욥은 이때에도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욥 2:10) 하며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이 아직 진리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합당치 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하지만 거듭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은 제대로 알았지만 이유 없이 재앙도 주신다고 오해하니 자신을 발견해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우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여겼습니다. 만일 자신이 왜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 그 원인을 깨달았다면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계속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생명을 위협받자 본성 속의 악을 발하는 욥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절망적 상황이 계속되자 욥은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환경을 저주합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시험 앞에서 본성 속의 악이 나오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오해하며 원망하지요.

욥기 27:2에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 하는가 하면, 자신은 의롭고 진실했으며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시냐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라는 고백이 진실이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지요.

그렇다고 욥의 모습을 일반 사람이 원망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는 극도의 절망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정이 상하거나 혈기를 내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4.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해 벗어 버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된 욥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식

적으로만 알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욥에게 친히 음성으로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큰소리치며 많은 말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해 왔는데 막상 하나님을 대하게 되니 욥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나와 보라고 하면서 변론하자고 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빌 면목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마침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하며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했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며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욥 42:2) 하고 중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욥은 연단을 통해 본성 속의 악까지 벗어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신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에 따른 행함이 나올 수 있지요.

결국 욥은 예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되는 축복은 물론, 자녀의 축복도 받아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습니다. 더구나 전국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을 정도였지요. 이처럼 욥은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과 더불어 명예, 권세, 물질, 자녀, 건강 등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욥기를 오해해 “시험 환난이와도 욥처럼 참아라. 그러면 나중에는 축복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참는다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시험이 왔는지 원인을 파악해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발견하고 통회자복해야 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욥도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렸을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따라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음의 성결을 이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의 사람으로서 마음껏 하나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하나의 돌에 불과하지만 숙련된 세공사에 의해 다듬어지면 찬란히 빛을 발하는 값진 보석이 돼 못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연단을 통해 모나고 거친 부분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면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귀히 쓰이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욥은 어떠한 연단을 통해 본성 속의 악까지 발견해 벗어 버림으로 참된 축복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1.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욥기 1:1에는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서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를 돌아보는 등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며 선만 행한 욥이 왜 모든 소유물을 잃는 등 혹독한 시험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욥은 구약시대 사람으로서 행위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숨겨져 있는 본성 속의 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성 속의 악만 버리면 욥은 영이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돼 마음껏 축복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6635,6635/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일주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온전한 십일조를 바르게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그런데 말라기 3:10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십일조란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이다. 구약시대 모든 율법을 오늘날에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시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담긴 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마 5:17). 십일조 또한 그에 담긴 하나님 뜻을 알아 더욱 온전히 지켜야 한다.

말라기 3:8~9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다. 즉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죄라고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3:23에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십일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성을 더해 규례를 두신 목적에 맞게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십일조는 주일성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된 본분을 지키는 증거가 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소득을 포함한 모든 물질에 대한 주권을 지닌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표현이며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 총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드리고 있나요?

만일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데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이 공제돼 실제로는 80만 원을 받는다면 십일조는 얼마를 드려야 할까? 공제된 것은 수입에서 나가는 지출이므로 온전한 십일조를 하려면 총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드려야 한다.

식사를 대접받거나 선물을 받는 등 비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그에 따른 십일조도 해야 한다. 이때 모든 물건의 시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넉넉히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것에 대해 십일조를 드려야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다.

◆ 다른 예물과 구별해 별도로 드리고 있나요?

혹여 자신의 총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떼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나 살펴봐야 한다. 어떤 사람은 수입에서 십일조만큼의 액수를 떼어 그것을 다른 현금으로 나누어 드리거나, 십일조를 드리면서 일부는 구제로 써 달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십일조는 ‘하나님 것’으로 구분된 것이기에 반드시 다른 예물과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 십일조로 드려야 할 것을 다른 현금으로 드리면 자신이 하나님 것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이처럼 올바른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에 드리고 있나요?

만일 출석하는 교회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가 다르다면 어디에 십일조를 드려야 할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살아났다면 치료비는 자신을 치료해 준 병원에 내야 한다. 십일조도 마찬가지이다. 영적 말씀을 공급해 믿음을 심어 주고 생명을 주는 곳이 바로 자신의 영혼이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십일조는 그곳에 드려야 한다.

◆ 자신의 이름으로 드리고 있나요?

혹여 가족이나 부부 등 공동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리는 않나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행위에 따라 상급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에 각자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남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남편이 주님을 영접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다. 자녀에게도 스스로 십일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부모님이 부부에게 공동 명의로 유산을 상속해 주었거나,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의 것이므로 두 사람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려도 가하다. 또한 수입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거나 합의 하에 특정 비율로 나눠 각각의 이름으로 십일조 하는 방법도 있다.

◆ 한 달에 한 번 이상 드리고 있나요?

십일조는 수입이 생기는 그때그때 드리거나, 적어도 한 달 간격으로 계수해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 농촌에서는 농작물을 수확, 판매해 몇 달 또는 일 년 단위로 수입이 있지만 선물 등 현물 수입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드리는 것이 좋다.

남편이 수입에서 십일조를 떼고 생활비를 준다면 아내가 또 드릴 필요는 없다. 자녀들도 용돈이나 선물 등의 십일조를 해야 하지만 부모에게 학비나 학용품비 등 정해진 용도로 받는 것은 수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십일조는 떼지 않아도 된다. 어린 자녀라도 백일, 돌, 생일 선물 등 수입이 있으므로 부모는 자녀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만약 컴퓨터나 피아노 같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린 자녀가 십일조를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대신 드리면 된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커서 내 줄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여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는다.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을 때에는 자녀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리거나, 학비를 내 주는 부모 이름으로 십일조를 드려도 좋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장학금을 학비로 모두 써야 하므로 수입이 생길 때마다 모아서 드리거나 취업한 뒤 수입이 있을 때 드려도 가하다.

◆ 수입에서 가장 먼저 구별해 드리고 있나요?

수입이 생기는 즉시 십일조를 구별해 놓으면 어디서 못 드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생활을 위해서나 사업자금으로, 또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것도 수입으로 여겨야 한다. 이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십일조까지 생각해 넉넉히 대출을 받을 것이다. 십일조를 드릴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과연 지금이 계획을 실행하기에 합당한 시점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십일조를 드릴 여유가 있을 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프로그램 July GCN Programming Guide

<p>이재목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발을 개간하자 1-4 - 성령의 9가지 열매 1-4 - 공간과 차원 3-7 - 위로부터 난 지혜 5-9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진 목사의 '육과영 10-13' - 정구영 목사의 '십자가의도 11-14' - 김승신 전도사의 '열매' - 이미영 목사의 '영의로 들어가는 장애, 의뢰할' 	<p>찬양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N파워프레이즈(2) 18,1-6 <p>GCN 특선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중왕 1,2부
---	--	---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및 A/S 문의 1577-2073

저는 스님인 아버지, 보살인 어머니 슬하에 장남으로 태어나 사찰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 불교 나라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 공동체 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활발하게 선교하며 열매맺고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은혜입니다.

20여 년 전, 저는 태국 선교의 좌절을 맞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민중앙교회를 만난 후부터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1998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기도로 저는 고질적인 허리디스크를, 아내는 산후풍을 치료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회장님께서 성경의 난해구절을 풀어 주시고 천국에 대해 깊이 있게 알려주시며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 주시니 신앙생활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다시 태국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11월, 저는 태국 선교사로 자원



“온 가족이 뚝뚝 뭉쳐 선교하니 행복합니다”

이재원 선교사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했습니다. 당시 태국에는 GCN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이 만민중앙교회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10여 권의 당회장님 저서가 보급돼 선교는 한층 수월했지요. 저는 시간만 나면 교회들을 방문해 ‘권능’ DVD를 보여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태국어 ‘만민뉴스’도 2,500여 개 교회에 발송했지요. 그 결과 많은 목회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2011년 5월에는 만민중앙교회 선교팀과 함께 태국 청소년교도소 위문공연 및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집회는 큰 호응을 얻어 2012년 3월, 왕립 육군사단 집회를 비롯 청소년교도소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권능’ DVD 상영과 우리 교회 선교팀 공연으로 인해 국위선양은 물론 고위층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현재 태국에는 130여 개의 자협력교회가 있습니다. 태국 선교는 인도차이나 반도(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타이·미얀마 등)를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라도 같지요. 올 하반기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개최할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한류 열풍에 맞춰 젊은이들을 깨우고 싶습니다”

만아들
이승훈 (19)



언더우드, 썬다 싱 등 유명한 선교사님들에 관한 책 20여 권을 반복해서 읽고 자란 저는 부모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태국에 왔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지 약 3개월 후 교회를 개척했는데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님 은혜로 점차 재미를 붙이게 됐습니다. 지금은 베이스 기타까지 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지요.

치앙라이만민교회에서는 한국어 강좌도 개설해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 이순옥 선교사님을 도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참 보람을 느낍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한류 열풍에 맞춰 젊은이들을 깨우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둘째 아들
이성현 (16)



어린 시절부터 선교의 꿈을 가졌기에 저는 기쁨으로 태국에 왔습니다. 저는 치앙라이만민교회에서 키보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에 1시간씩 약 2달간 배웠는데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지 않아 독학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배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다. 아침잠이 많던

제가 새벽에 일어나 연습하고 방과 후에도 연습하면서 금식기도로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찬송가를 연주할 수 있었지요.

이러한 제 모습에 성도님들은 감동을 받았고 어떤 성도님은 그동안 자신이 더 헌신하지 못함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저의 작은 섬김이 성도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저것 도울 일이 많아 행복해요”

막내아들
이성결 (14)



아직 어린 나이지만 태국에서는 무척 할 일이 많습니다. 아동주일학교 교사, 교회 식당 요리 보조, 성전 꾸미기, 전도 등으로 바쁘지요.

또한 찬양 팀에서는 독학으로 복을 치고 있으며 때때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엄마를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니 어느새 태국어는 물론 영어 실력도 부쩍 향상됐습니다.

약 2개월 전에는 발에 스무 개가 넘는 티눈이 생겨 아프고 불편했는데 바닷가의 잔물이 당회장님 기도로 바뀐 권능의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바른 후 하루하루 만에 깨끗해지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림동 18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정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라만민교회 충북 괴성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미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920-4512, 010-3343-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1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